

◆ 북미

- 美 뉴욕주 보험사, 자동차보험 요율 자유화 환영

◆ 유럽

- 헝가리 금융감독청, 2007 수입보험료 실적을 발표
- 영국 대법원, 스코틀랜드 악성중피종 배상 판결을 뒤집어

◆ 일본

- 메이지야스다생명, 2007년 단체보험시장에서 연속 1위 차지
- 2007년 일본 손보, 보험영업수지 적자폭 축소 및 자산운용 실적 개선

◆ 중국

- 상하이(上海)지역 보험만족도 76.4%로 상승
- 중국, 하반기 보험시장 상승세 한풀 꺾일 듯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美 뉴욕주 보험사, 자동차보험 요율 자유화 환영

- 최근 뉴욕주 보험감독청은 회계연도 내 5% 범위에서의 자동차보험 요율인상인하 결정시 뉴욕주 보험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게 주보험법을 개정
- 뉴욕주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일정 범위내의 자동차보험 요율자유화는 지난 2001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적용
- 2001년 뉴욕주 의회는 감독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7%의 범위 내에서 요율인상 또는 인하했던 법규를 만료시킴.
- 뉴욕주 보험협회장인 엘렌 멜치오니는 보험요율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시장은 좀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좀 더 많은 보험업자가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 할 것이라고 언급
- 새로운 자동차보험요율 법의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이며 법개정의 최종 승인자인 뉴욕주지사의 인가를 받기위해 대기 중임.
- 보험상호회사협회(NAMIC) 닐 알드리지 부회장은 '이번의 요율자유화법 상정의 뉴욕주의회 통과는 미국내 기타 지역에서는 요율현대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
- 또한 미국 주 입법부원들은 점차 '현재의 요율체계가 불필요한 법 규정일 뿐만 아니라 생산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보험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효용을 낮추고 있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캔자스주 입법의원들은 12%범위내의 요율자유화법을 주 의회에 상정시켜놓고 있으며, NAMIC는 과거 5년 동안 20여개 주가 유사형태의 요율자유화법을 채택해 왔다고 밝힘.
- 뉴욕주의 이번 법개정으로 알래스카, 코네티컷, 캔자스, 루이지애나, 노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의 뒤를 이은 8번째 주로 기록 (*Insurance Journal* 6/26)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헝가리 금융감독청, 2007 수입보험료 실적을 발표

- 2007년 헝가리의 전체 보험시장을 살펴보면, 생명보험 시장에서는 전통형 상품의 지속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손해보험에서는 가격경쟁력 심화 및 성숙 시장(maturity market)으로의 진입에 따라 성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4.0% 성장한 5,050억 포린트를 기록하였으며, 손해보험에서는 전년대비 3.3% 성장한 4,029억 포린트로 총 9,309억 포린트의 수입보험료를 거수하였음.

<2007년 전체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십억 포린트, %)

구 분	보험회사					조합	합계
	생명 (전통형)	생명 (변액)	생명 (전체)	일반손해	소계		
수입보험료 (2006)	169.4	237.9	407.3	390.0	797.4	21.1	818.5
수입보험료 (2007)	166.1	338.9	505.0	402.9	907.9	23.0	930.9
성장률	-1.9	42.4	24.0	3.3	13.9	8.8	13.7

- 2007년 보험상품에 있어서는 고객들의 다양화된 수요 증가와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공급으로 인해 상품 구성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동시에 펀드 관련 투자상품의 인기는 독보적인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국내투자자들의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한 욕구 증가와 가격 투명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 때문임.
- 이 같은 금융시장의 변화로 인해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통형 상품

보다는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성이 높은 상품의 판매가 활성화 됨.

- 또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장기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펀드 상품에 있어서 발생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하기도 함.
- 따라서, 주식담보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담보대출 (loan and collateral)보험이 높은 판매실적을 기록하면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종목별 수입보험료 실적>

(단위 : 백만 포린트, %)

	수입보험료			성장률(전년대비)		구성비(%)	
	2005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생명(변액제외)	163,597	174,740	172,173	6.8	-1.5	21.3	18.5
변액보험	139,160	237,938	338,898	71.0	42.4	29.1	36.4
Casco	101,457	105,181	101,842	3.7	-3.2	12.9	10.9
제3보험(MTPL)	122,715	129,345	133,131	5.4	2.9	15.8	14.3
화재, 재난	66,277	36,294	75,643	4.6	9.2	8.5	8.1
기타 금융상품	47,574	51,301	54,685	7.8	6.6	6.3	5.9
손보(소계)	386,300	405,790	419,824	71.0	42.4	29.1	36.4
합계	689,057	818,468	930,915	18.8	13.7	100.0	100.0

- 수익률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23.3%를 기록하였으나, 기타 금융산업(은행 17.5%, 투자회사 28.9%, 금융회사 22.6%, 신용협동조합 10.6%)의 평균치인 18.5%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런 보험회사 수익 대부분은 손해보험 사업에서 그 이익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나 세후 이익에서는 전년대비 73.2%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 이와는 대조적으로 2007년 생명보험의 ROE(자산이익률)에서는 전년대비 3.6%p 감소한 18.9%를 기록하였으며, 세후 이익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2.3%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냄.

(Hungari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6/23)

□ 영국 대법원, 스코틀랜드의 악성중피종* 배상 판결을 뒤집어

- 최근 영국의 대법원(highest court)에서는 스코틀랜드 국회에서는 악성중피종(pleural plaques)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문을 뒤집어 이를 소급시키기로 함.

* 폐의 늑막을 싸고 있는 흉막에 생기는 암으로 중피종에 걸리게 되면 평균 잠복기간인 30여년을 지나 사망에 이르게 되며, 영국에서 악성중피종으로 보상을 받은 근로자는 110여명에서 2005년 약 700명(진단 환자 수는 1,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 대법원에서는 악성중피종(pleural plaques)이 단순히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질환으로만 보기에선 원인이 불분명하다며 이를 보상할 수 없다고 판결함.
- 석면은 많은 국가에서 산업화와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슬레이트,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석고보드, 단열재 등과 같은 일반 환경에도 노출되어 있음.
- 2007년 10월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악성중피종이 현재 신체활동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단순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질환의 신호에 불과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은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폐질환의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수가 없게 되었음.
- 따라서, 앞선 원고의 악성중피종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판결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결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게 됨.
- ABI의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 책임자인 Nick Starling에 따르면, 이 같은 스코틀랜드의 판결문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결정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스코틀랜드 국회에서는 이번 법안과 관련하여 보다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안이 향후 스코틀랜드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납세자에게도 보다 무거운 납세의 의무를 지우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임.

(Business Insurance, 6/25)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메이지야스다생명, 2007년 단체보험시장에서 연속 1위 차지

-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 생명보험은 단체보험 보유계약고 기준으로 일본에서 연속 1위 차지
-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복지 단체정기보험, 단체신용생명보험 등을 판매
- 다양한 법인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보험상품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종합컨설팅을 전개하여 높은 실적 기록
- 메이지야스다생명의 전신인 메이지생명은 민간기업 단체보험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고, 또 다른 전신인 야스다생명은 공공기관 단체보험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한 바, 합병 후 일본에서 최고의 단체보험시장을 선점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림
- 메이지야스다의 법인종합컨설팅은 임직원의 질병 및 상해보장, 휴업보상, 유족보장, 노후 생활자금 지원 등과 같이 기업이나 단체의 니즈에 부응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
- 기업의 단체 복리후생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단체보험이나 단체연금 등의 보험제도가 활용되고 있어 예를 들면 단체정기보험, 종합복지 단체정기보험, 의료 보장보험, 단체 취업불능 보장보험, 단체신용생명보험 등을 제공
- 또한, 메이지야스다의 독창적인 상품으로서 종합 복지 단체정기보험, 무배당급특약, 신·단체정기보험을 판매하는 동시에 건강 증진 서비스, 유가족 지원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의 특징 있는 부가서비스 등을 폭 넓게 제안
- 건강 증진서비스는 건강 정보지의 발행, Life Plan 세미나 등을 통해 중업

원과 가족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유가족 지원 서비스는 종업원에게 만일의 경우 나머지 가족에 대해 기업이나 단체가 안내 및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외에 유가족 전용의 24시간 건강상담 콜센터도 제공

- 사무 지원 서비스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기업이나 단체의 사무 간소화나 보험금의 청구를 신속히 처리

(일본보험매일신문 6/26)

□ 2007년 일본 손보, 보험영업수지 적자폭 축소 및 자산운용실적 개선

- 일본 손해보험협회의 2007년도 전체 손보사의 결산실적에 의하면 손해보험의 적자폭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도 결산 특징

원수보험료가 감소하였으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감소하여 보험영업수지가 흑자에 가깝게 호전되어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축소. 또한, 이자 및 배당금 수입 등에서 자산운용실적이 개선되어 경상이익 및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에 이어 흑자를 확보

○ 결산 개황

경상수익은 보험인수수익이 8조 7,222억엔, 자산운용수익이 8,368억엔, 기타 경상수익이 341억엔이 되어 그 결과 전년대비 472억엔(0.5%) 감소한 9조 5,931억엔을 실현. 한편, 경상비용은, 전년대비 108억엔(0.1%) 감소한 9조 2,148억엔 실현. 그 결과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4,147억엔에서 364억엔(8.8%) 감소한 3,784억엔이 되어 세후의 최종 당기 순이익도 전년대비 2,510억엔에서 142억엔(5.6%) 감소한 2,368억엔 실현.

○ 보험인수 개요

①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는 해상보험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주력인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에서 감소하여 전년대비 671억엔(0.9%) 감소한 7조 4,700억엔 실현

* 수입보험료는=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 출재 보험료 가감+해약환급금

② 지급보험금*

정미지급보험금은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한 한편,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적어 화재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7억엔(0.0%) 감소한 4조 3,367억엔 실현. 그 결과 손해율은 전년대비 62.0%에서 62.8%로 0.8%p 상승

*지급보험금=원수보험금+수재보험금+수재 보험금 환입

③ 보험인수 관련 「영업비 및 일반 관리비」

보험인수와 관련되는 「영업비 및 일반 관리비」는 전년대비 618억엔(5.3%) 증가한 1조 2,228억엔이 되어 사업비율은 1.0%p 증가한 33.2% 실현

④ 보험인수이익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반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수반하는 부담이 감소한 것에 의해, 보험 인수 이익은 전년도의 1,047억엔의 적자에서 639억엔 적자가 되어 409억엔 개선

○ 자산운용현황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2007년도말 총자산은 34조 7,091억엔으로 전년대비 37조 2,747억엔에서 6.9% 감소. 또한 이자 및 배당금 수입은 기업실적의 회복 등으로 인해 배당금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4.9% 증가한 7,403억엔이 되어 경상이익 및 당기 순이익의 흑자 확보에 기여

(일본손해보험협회 6/23)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상하이(上海)지역 보험만족도 76.4%로 상승

- 지난 6.13(금) 제 3회 상하이(上海) 보험세미나에서 <해방일보 보험주간>과 푸단(復旦)대학 보험연구소는 '제 2차 상해지역 보험서비스 만족도 조사보고'를 공동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해지역 보험서비스 종합만족도는 76.4%로 지난해 동기대비 약 1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방일보 보험주간>과 푸단대학 보험연구소는 금년 1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방법으로는 1)소비자 인터뷰(30%), 2)보험회사 설문조사(20%), 3)<보험주간> 독자평가(25%), 4)인터넷 설문(25%) 등 4가지가 동원되었음.
- 보험서비스 수요와 보험회사의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소비자 인터뷰에서는 1차 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했으나, 보험판매서비스 부분에서는 75.5%로 1차 조사 때보다 약간 하락하였음.
- 보험대리인이 보험판매시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설명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52%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약관내용, 면책조항, 고지의무 등을 완벽하게 설명한 경우는 2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최근 수년 동안 보험회사가 보험판매 채널을 다양화 하기는 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보험대리인을 주요 가입통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대리인의 자질향상이 전체 보험업계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소비자들의 불만이 집중된 부분은 역시 보험금 지급관련 부분으로써, 일부 조사대상자는 보험금 지급방식을 다양화 하고 조기 지급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함.

(해방일보, 6/25)

□ 중국, 하반기 보험시장 상승세 한풀 꺾일 듯

- 금년 하반기 중국 보험시장은 상반기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업계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 신상품 출시와 방카슈랑스의 활약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재해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투자수익마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국 보험시장의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생명보험 시장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연초 보고서에는 주식시장 영향으로 생명보험 시장이 하반기에 45%정도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시장상황으로 볼 때 이는 과도하게 비관적인 예측이었으므로 시장증가율을 50% 이상으로 수정한다." 광따증권(光大證券) 보험업종 애널리스트 샤오차오후(肖肖虎)은 전함.
- 그러나, 손해보험회사 고위 관리자에 따른 손해보험 시장의 전망은 "연초 설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대지진이 발생했고 회사간 경쟁도 치열해짐에 따라 하반기에도 어려운 날들이 계속될 것이다." 면서 일부 회사는 손실통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 한편, 하반기에는 보감위가 4개 은행에 대해 보험회사 지분보유를 허용함으로써 은행의 보험업 진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보감위와 은감위의 허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은행-보험간 업종장벽이 허물리면서, 은행지분을 보유하지 못한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업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상해증권보, 6/26)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6.20(금)	08.6.27(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72	5.77	0.05
	美 10년국채	4.03	4.14	4.52	0.38
	英 10년국채	4.51	5.06	4.98	-0.08
	日 10년국채	1.51	1.76	1.62	-0.14
주가	韓 KOSPI	1,897.13	1,731.00	1,684.45	-2.69%
	韓 KOSDAQ	704.23	609.16	594.63	-2.39%
	美 DJIA	13,264.82	11,842.69	11,346.51	-4.19%
	美 Nasdaq	2,652.28	2,406.09	2,315.63	-3.76%
	英 FTSE100	6,456.90	5,620.80	5,529.90	-1.62%
	獨 DAX30	8,067.32	6,578.44	6,421.91	-2.38%
	佛 CAC40	5,614.08	4,509.27	4,397.32	-2.48%
	日 Nikkei225	15,307.78	13,942.08	13,544.36	-2.85%
	中 상해종합	5,261.56	2,831.74	2,748.43	-2.94%
	대만 가권	8,506.28	7,902.44	7,548.76	-4.48%
	홍콩 항셱	27,812.65	22,745.60	22,042.35	-3.09%
환율	원/달러	938.2	1,028.10	1,042.00	13.90
	원/100엔	833.33	950.72	967.56	16.84
	엔/달러	112.58	107.31	106.21	-1.10
	달러/유로	1.4722	1.5634	1.5752	0.01
	위안/달러	7.3041	6.8775	6.8615	-0.02